



# 북한의 수도계획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미국 브라운대학교 사회학 박사)

**조은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김미영**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요약 :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평양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는 수도계획 연구가 필수적이다. 근대국가에서 수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일반적으로 막강하지만, 수도 평양은 더욱더 그러하다. 도시건설의 양적 거대화과 함께 대규모 국가의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진 점 등으로 보아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수도 평양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한 것이다. 특히 경제난의 지속과 특히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의 가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장국가적 성격을 보다 크게 부각하게 하였다. 현재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은 유헌 통치의 미명 하에 극장국가의 면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평양은 핵심적 무대공간으로서 특별히 치장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 전역의 심각한 피폐화와 무관하게 수도계획에 몰두한다는 점 자체가 목하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방증하는지도 모른다.

##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도시계획,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평양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도계획 연구는 필수적이다. 근대국가에서 수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일반적으로 막강하지만, 수도 평양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북한을 기본적으로 ‘극장국가’<sup>1)</sup>로, 그리고 평양을 그것의 대표적 ‘공연무대’<sup>2)</sup>으로 인식한다.

## 이론적 배경

### 1. 수도계획론

근대국가들에게 있어서 수도는 국가의 눈이자 입이었다. 수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목표가 수도를 일국(一國)의 눈과 입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크게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도시계획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도계획이었다. 홀은 현존하는 수도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Hall, 2006). ‘복합기능 수도’(Multi-Function Capitals), ‘세계적 수도’(Global Capitals), ‘이전(以前) 수도’(Former Capitals), ‘제국의 구(舊)수도’(Ex-Imperial Capitals), ‘역내수도도’(Provincial Capitals), ‘초국가 수도’(Super Capitals)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수도는 전통적인 ‘복합기능 수도’이며, 북한의 수도인 평양도 여기에 해당한다.<sup>1)</sup>

### 2. 극장국가론

권력이란 상호작용하는 상징의 체계이며, 국가운영의 핵심원리는 다름 아닌 연극이라는 발상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극장국가’(theater state) 이론이다(Geertz, 1980). 극장국가는 권력의 정치(politics of power)가 아니라 ‘과시의 정치’(politics of display)이다. 극장국가에서는 국민 전체가 연기의 행위를 공유하면서 연극에 동참한다. 즉, 동일한 시나리오에 얽여 있는 연기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기가 곧 정치인만큼,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정치지상주의’를 지향한다. 그곳에는 각자 맡은 바 충실한 연기수행을 통해 국가전체를 극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은 원천적으로 부재(不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국가권력과 정치체제를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극장국가론이다. 와다 하루키는 “김정일이 연출가이자 디자이너로 있는 북조선의 유격대국가는 바로 기어츠가 규정한 ‘극장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띠고 있다”고 보았다(와다, 2002:156). 즉, 북한에서는 영도예술이라는 이름의 “통치의 연극화, 통치의 예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무대에 북한의 수도 평양이 있다.

1) 수도에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제8의 유형을 선보이는 측면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수도 분할 현상 때문이다. 특별시 자격의 수도가 두 군데 존재한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 북한의 건축·도시·수도 계획 원리

### 1. 건축

북한에서 건축설계 혹은 건축계획은 살림집(주거), 공공건물, 산업건물, 농업건물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국토·도시계획 및 설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건축가는 수령이 펼쳐준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기술자며 창작가에 불과하다. 수령에 의한 사상의식을 체득해야만 비로소 혁명적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결국 북한의 건축은 수령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진다. 또한 북한은 기념비적 건축물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념탑, 기념비, 동상 등의 기념 구조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감정을 일으켜 사상 교화에 기여한다.

### 2. 도시

북한에서 도시건설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도시의 경치”가 잘 나타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6). 이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건설해야하는 공간은 바로 도시 중심부이다. 도시중심부는 공간 구조상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이념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심부는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박물관, 문화회관, 극장 등 공공문화시설들을 밀집시킨다. 이는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문화생활이 집중되도록 하여, 인민들이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체득하고 사상과 정서 교양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 3. 수도

수많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들에서 발견되는 평양의 수도계획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전 국토의 상징이며, 북한의 사상과 이념체계의 응축물로서 평양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김일성, 1981:622)로서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평양은 조국의 얼굴로 잘 건설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평양 건설은 김일성 조국의 존엄, 사회주의 조선의 권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다.

## 수도 평양의 공간구성

### 1. 1950년대

김일성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시기 연설을 통해 건축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해야한다’고 부단히 강조하였다. 여기서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자기 민족의 구미에 맞는 건축양식이며, 사회주의 내용이란 모든 건축물들이 근로인민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55년 12월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서 건축계에서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투쟁을 벌이고 주체적 입장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 1960년대 건축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민족적 형식에 민족전통양식과 사회주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한 건축을 평양 곳곳에 실현한다. 1960년 완공된 평양 대극장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극장건물로, 첫 현대 조선식 건물의 하나이며, 옥류관도 건설하였다. 절벽에 축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2층으로 크고 작은 합각지붕을 엮물리게 하고 벽면은 골조를 돌출시킴으로써, 대동강의 풍치와 조선식 건축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3. 1970년대

북한은 1967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김일성과 김일성 후계문제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자체제 강화용 대기념비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전국에 대량으로 건설한다. 게다가 1972년은 김일성 60회 생일이기도 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평양의 주요 거리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기념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갔다(김원, 1998:257). 2011년 김정일 사후, 북한은 만수대 대기념비에 김일성 동상과 같은 크기의 김정일 동상을 세워 현재는 두 동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sup>2)</sup>



그림 1. 평양대극장, 옥류관

2) 2012년 2월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 옆에 세워진 김정일의 동상은 코트 차림이었으나 2013년에는 점퍼 차림을 하고 있다.

### 3. 1980년대 이후

1980년대의 대표적 건축물로는 주체사상탑, 모란봉 기슭의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등이 있다. 또한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전후로 ‘청년중앙회관’이나 ‘동평양대극장’ 등 현대적 건축미를 중시하는 공공건물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 중심부 건설을 완료하고 다양성과 상징성을 함께 표현하기 위한 건축적 실험을 대규모로 시도하였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며, 평양의 극장국가적 면모를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을 체제와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동평양대극장과 인민대학습당

## 수도 평양의 국가의례

### 1. 태양절 행사: 평양 전역 및 전국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최대 명절이다. 축하행사는 수도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매해 태양절에 개최된다.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부터 연례적으로 열려온 이 축전에는 북한의 유명 문예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술단체 및 연예인 등이 초청되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개최된다.



그림 2. 김일성 광장에서의 태양절 행사 풍경

### 2. 아리랑 공연: 평양 5.1 경기장

아리랑축전은 가장 규모가 큰 상징적 국가공연이다. 2010년 10월 9일 당 창건 기념일 전야제에 개최된 공연에서는 당시 후계자인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하여 대중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후계자를 확인시켜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극장국가’ 북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아리랑축전 공연 모습

### 3. 대규모 퍼레이드: 김일성 광장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군 열병식 등)가 연중 거행되며 그 참가인원의 규모가 상당히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관객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배우가 된다. 특히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연중 수많은 기념행사와 대규모 퍼레이드, 축전 등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된다. 이와 같은 상징적 국가의례 행사는 수령과 국가, 민족과 인민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믿음체계를 내면화하는 기능을 한다. 인민들은 극장국가의 상징적 공연에 배우와 관객으로 직접 참여하는 화려한 경험과 그것과는 현격하게 대비되는 어려운 일상생활을 ‘공적-사적 영역’과 ‘공식-비공식’ 상황으로 구획화하는 행동패턴을 익히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별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정병호, 2010:34).

## 결론

북한은 정권 수립기보다 1950년 전쟁 후 수도 평양의 도시건설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도 계획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전후 복구과정 초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해 ‘민족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도시건설과 건축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계획과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즉 ‘사상성’을 중시하는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으로 변화하면서 수도 평양의 도시 계획에도 ‘주체건축론’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정책실패와 국내외 정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수도 평양은 엄청난 규모의 광장과 육중한 공공건물 등을 건립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수도 평양의 도시건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대규모 국가의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졌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난의 지속과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의 가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장국가적 성격을 보다 크게 부각하도록 만들었다. 2002년에 시작된 아리랑 공연, 비정기적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집체 시위의 증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이들의 빈번한 대외 노출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은 유신헌치의 미명 하에 극장국가의 면모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평양은 핵심적 무대공간으로서 특별히 치장되고 관리될 공산이 더욱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심각한 피폐화와 무관하게 수도계획에 몰두한다는 점 자체가 목하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방증하는지도 모른다.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2013)이 말한 것처럼, 근대화와 세계화의 대세 속에 오래전부터 일본 도쿄는 Tokyo로, 그리고 한국의 서울도 언제부턴가 Seoul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작금의 평양은 여전히 전근대 왕조 시대의 '평양성'(平壤城)에 더 가깝다.

## 〈참고문헌〉

- 강상중(2013), 『도쿄산책자』, (송태욱 옮김), 서울: 사계절.
- 김원(1998),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 김일성(1980),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을 작성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6(1950.06-1051.12), 조선로동당 출판사.
-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II』, 발언,
- 백과사전출판사(1995) 조선대백과사전 제1권.
- 와다 하루키(2002), 『북조선』 (서동만 · 남기정 옮김), 서울: 돌베개.
- 정병호(2010),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22(2), 1-42.
- Geertz, C.(1980). *Negar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P.(2006). “Seven types of capital city,” in Gordon, D.(ed.), *Planning Twentieth Century Capital Cities*, New York: Routledge.